

무등일보

곳곳서 승전보... 광주·전남 순항

전국체전 3일째

제94회 인천 전국체전에 참가하고 있는 광주·전남선수단은 육상과 체조 역도에서 금메달을 보내는 등 금빛 행진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대회 3일째인 21일(오후 4시 기준) 광주는 금5·은17·동23개, 전남은 금14·은17·동11개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의 첫 금은 여자 양궁에서 더졌다.

지난 19일 일반부 60m에 출전한 이특영(24·광주시청)이 제양아시아드 양궁장서 350점을 기록하고 첫 승전보를 올렸다.

이특영은 경기종반까지 1점차로 고은별에게 끌려갔지만 마지막 6반에서 59점을 쏴, 고은별을 2점차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강세 종목 육상·체조 등서 '금빛 낭보' 육상 박태경 5연패 달성 실패 '아쉬움'

여대부 안세진(광주여대4)도 60m서 343점으로 금을 수확했다.

또, 레슬링·체조·사이클에서 '금빛 낭보'가 이어졌다.

백신헌(광주체고3)이 그레코로만형 76kg급서 경기대표 이충연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3일째에는 체조 고등부 에어로빅 2인조서 김유환·정애지(광주체고 1년)조가 우승을 차지했고, 사이클 남고부에서는 유진규(광주체고 3년)가 정상에 올랐다.

특히 역도 여고부 최다회는 73kg급 인상 101kg, 용상 135kg, 합계 236kg을

들어올려 은메달만 8개를 수확하면서 광주의 메달순항에 힘을 보탰다.

체전 5연패 달성여부에 관심을 보였던 110m 허들 박태경(광주시청)은 13초 85에 그쳐 은메달에 머물렀다.

전남은 체전 2일째 이영승(조리과학고 3년)이 볼링 중북서 첫 '금빛 낭보'를 전했다.

이영승은 이날 여고부 개인전에 출전해 937점을 올려 799점의 울산 박지민과 798점의 충북 김현아를 가뉘며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인우(완도수산고 3년)는 대회 2

일째인 19일 주안초등학교에서 열린 남고부 용상 69kg급에서 171kg을 들어올리며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고 인상에서 121kg을 기록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합계에서는 300kg로 금메달을 추가, 전남에 첫 다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마라톤에서는 기대주 박주영(한국전력)이 2시간24분24초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박주영의 이번 우승은 육상선수 최초로 마라톤 3회 우승(89·91·94체전)이라는 진기록까지 세우게 됐다.

사이클에선 임사람(전남미용고3년)이 2연패를 달성했고, 수영에선 박선관(담양군청)이 50m에서 배영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전남은 양궁·롤러 스마 등에서도 금빛 승전보를 올렸다.

박지훈기자

“개인전 우승 더욱 기쁘다”

이영승, 볼링서 전남 첫 금

조리과학고 3년

“무엇보다 고장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게 돼 기쁩니다. 지금까지 개인전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번 전국체전을 발판삼아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승(조리과학고 3년)이 볼링 중북서에서 전남에 첫 '금빛 낭보'를 전했다.

이영승은 지난 19일 여고부 개인전에 출전해 937점을 올려 799점의 울산 박지민과 798점의 충북 김현아를 가뉘며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영승의 우승은 아무도 점치지 못했다.

이영승은 이번 체전에서 개인타이를 보다 2인조나 5인조 단체전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했다.

지난 체전서도 이영승은 2인조와 5인조 경기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 개인타이틀과는 인연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체전은 달랐다.

대회 일주일을 앞두고 인천에 도착한 이영승은 레인 적응을 위한 맞춤식 훈련이 적중하면서 우승까지 일궈냈다.



앞서 치러진 대한 볼링협회상대 전국대회서 마스터스와 개인종합서 2관왕을 차지한 것도 현지 레인 적응 훈련이 큰 역할을 했다.

이영승은 “대회 초반에 긴장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번 레인 적응훈

련을 통해 단점을 많이 극복한 것 같다”며 “긴장하지 않고 평소처럼 경기에 임한 것이 실전에서 고득점을 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영승의 금빛낭보의 영향은 가족의 영향이 크다.

가족 모두가 ‘볼링집안’이다.

부모님 모두 현재 볼링의 메카인 곡성서 볼링 인재육성을 위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아버지는 볼링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남 선수단 고등부 감독이고, 어머니는 곡성중앙초와 곡성중학교, 전남조리과학고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남동생 또한 고등부 선수로 활약하는 등 볼링가족이다.

이영승은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며 훈련에 임해 매년 기록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훈기자

광주매일신문

양궁 선전...김덕현 2연패·김태균 대회新

《멀리뛰기》

《핀수영 호흡진영 100m》

박태경 '아쉬운 銀' 110m 허들 대회 5연패 좌절 전남 마라톤 박주영·남고 역도 이인우 2관왕

인천 전국체전 3일째



제94회 전국체육대회 3일째인 20일 광주와 전남은 목표로 했던 메달을 대부분 따내며 순항하고 있다.

광주

광주는 양궁도시답게 광주시청 이특영이 첫 금메달을 뽐내며 산뜻한 출발을 했다. 이특영은 대회 둘째 날인 지난 19일 제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일반부 60m에서 350점을 획득, 정상에 올랐다. 또한 이날 여대부 안세진(광주여대·4년)도 60m에서 343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육상에서도 금빛 질주가 이어졌다. 20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여고부 400m에서 한진미(광주체고·2년)가 56초50으로 우승, 멀리뛰기에서 김덕현(광주시청)이 7m86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남자 일반부 110m 허들에 출전한 광주시청 박태경은 13초85로 은메달에 머물러 대회 5연패가 무산, 아쉬움을 더했다.

핀 수영 호흡진영 100m에서는 김태균(광주시체육회)이 32초44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해 부자 총점으로 화제를 모았던

남자 일반부 우수 태극권전능에서 장용호(광주시체육회)가 귀중한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사이클 남일반부 포인트레이스 박성택(국민체육진흥공단), 우수종목 남고부 태극권 서희성(동원전자정보고·2년), 유도 남대부 -60kg 안바을(용인대), 사이클 남고부 경륜 유진규(광주체고·2년), 체조(에어로빅) 고등부 2인조 김유환·정애지(광주체고), 레슬링 남고부 G 76kg 백신헌(광주체고·3년) 역도 인상 105kg급 남고부 박철민(광주체고·2년), 태권도 -63kg급 남일반부 김제업(한국가스공사)등도 금메달을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전남

전남은 지난 19일 동남블링장에서 열린 볼링 여고부 개인전에서 이영승(전남조리과학고)이 앞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첫금을 선사했다.

주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역도 경기에서 남고부 이인우(완도수산고)가 69kg급 용상에서 171kg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는 등 69kg급 합계와 함께 2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20일 오전 9시에 문학경기장에서 출발한 마라톤에서는 박주영(한국전력)이 2시간24초22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밖에 양궁 50m 여대부 위나연(순천대), 수영 배영 50m 남일반부 박선관(담양군청), 씨름



“내가 1위다” 20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마라톤 남자일반부에서 박주영(전남)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호하고 있다. /연남뉴스

역사급 고등부 고강식(여수공고), 롤러 15000m 제외 김찬호(광양제철고), 사이클 경륜 여고부 임사람(전남미용고), 육상 멀리뛰기 여고부 박소희(전남체고), 육상 400m 여고부 김은정(전남체고), 육상 400m 남고부 이원, 육상 허들 에들비엘경기 일반부 권만준(금성고), 태권도 -68kg급 남일반부 이길수(가스공사), 유도 -48kg급 여고부 강유정(여수정보과학고) 수상스키 솔라론 여고부 김수미(영광해동고), 낚시 2인조전 남일반부 최복음·박종우(광양시청) 등이 귀중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인천=이영민기자 genius@kdaily.com



20일 열린 남자 마라톤에서 1위로 골인한 박기영(전남)이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하고 있다.

전국체전 사흘째 광주·전남 순항

광남일보

전남, 마라톤 박기영·사이클 임사랑 등 우승... 금 16 은 19 동 11
광주, 양궁 이특영 '깜짝 금'... 마라톤 정복순 대역전극 동메달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8일 인천에서 개막한 가운데 각각 12위와 13위를 목표로 경기에 나선 전남과 광주는 대회 사흘째인 20일 각각 14개와 5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순항하고 있다.

전남 대표단(총감독 박내영)은 이날(16시 기준)까지 금메달 16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1개 등 총 4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특히 20일 종합체전의 꽃이라고 불리는 남자 마라톤에서 박주영이 1위로 골인해 이번 대회 주경기장인 문학경기장에 '전남 파이팅'이라는 함성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으며, 전남마용고 3학년 임사랑이 사이클 이코부 경주에서 2연패를 달성하는 등 예상 밖의 선전으로 지역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여도의 이인우(완도수산고)도 웅상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에 올랐고, 불령에 출전한 이영승(전남조리과학고)은 개인전에서 937점을 얻어 전남 대표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메달밭인 육상에서는 전남체육고 소속 윤승찬(해머던지기)과 이원(400m), 김은성(높이뛰기), 박소희(달리뛰기) 남매가 나란히 금메달을 사냥하는 등 각 종목에서 메달이 쏟아졌다.

광주도 20일(15시 기준) 체조(에어로빅 2인조)의 광주체육고 김유환·정애지 선수와 사이클(경륜)의 윤진규(광주체육고)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천탄고 김영운·백종운 선수가 불링 2인조 경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육상과 레슬링 유도 승마 등에서 9개의 동메달이 쏟아지는 등 초반 기세가 등등하다. 여자 마라톤 정복순(광주시청)은 초반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서 어

려움을 겪었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선두권을 주며, 2위와 불과 1초 차이로 동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앞서 19일에도 광주 대표단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1개, 동메달 12개 등 현재까지 총 39개(금 5, 은 12, 동 22)의 메달을 획득하고, 다른 단체 대진과 기록경기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열린 양궁 여자 일반부 60m에서 광주시청 소속 이특영은 예상 밖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화려하게 재기했으며, 여자 태학부 안세진(광주여대)도 세계 정상급 수준의 기량을 뽐내며 가볍게 6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한편 18일 저녁 열린 개막식은 항구도시 인천의 역동성을 설파하는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함께 성대하게 치러졌다.

경기장에는 차기 개최지인 제주

선수단이 가장 먼저 입장했고, 개최지 인천 선수단이 대미를 장식했다.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과 '배우복서' 이시영이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7일간 타오를 성화대에 불을 붙였다.

이들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대표,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주부, 다자녀 어머니 등에게서 성화봉을 이어받아 네 번째 주자로 뛰었다.

박태환, 이시영은 관중의 초열기와 함께 성화봉을 성화대에 접촉시켜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많은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고 여기서 갖고 닦은 기량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인기·비인기 종목을 구분하지 않고 선수와 지도자들이 체육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체육계 풍토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행 대한체육회장도 "이번 체전은 지방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하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경석 기자 pius97@

광주매일신문

■ 전남 첫금.....물림 이영승(전남조리과학고)

‘부모님은 코치, 자녀는 선수’ 불링가족 만세

“부모님은 코치고 남동생과 저는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 가족은 불링가족입니다.”

전남의 첫 금메달을 지난 19일 인천시 연수구 동남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불링 여자부 개인전에 출전한 이영승(18·전남조리과학고 3년) 선수의 손을 예서 만들어졌다.

이영승 선수의 가족은 특별하다. 아버지 이성민(45)씨는 곡성중 불링부 코치, 어머니 윤희경(45)씨는 전남조리과학고 불링부 코치, 동생인 이원석(16·고1)군은 같은 학교 불링부 선수로 함께 활약 중인 불링가족이다.

이렇게 불링가족이 되기까지는 아버지 이씨의 운동사랑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씨는 자신의 딸을 운동선수로 키우기 위해 사주에 맞춰 운동선수로 대성할 수 있다는 시간대에 제왕절개를 통해 딸을 낳았고, 이듬해 직방소에서 ‘빛을 내며 높이 오른다’는 뜻으로 비질 영(映), 오를 승(昇)이라고 지었다.

아버지 이씨의 운동에 대한 열정을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



여고부 불링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영승 선수가 가족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다. 이씨는 자녀를 연습시키기 위해 곡성읍에 있는 불링장을 임대까지 해서 훈련장으로 쓰고 있었다.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이 완상부는 나무는 띄우며 달랐다.

이양은 곡성중 1학년 시절 소년체전에 참가해 금2, 은1을 따내면서 MVP에 올랐고 2학년 때는 금1, 은1을 획득했으며 3학년 때 금2개를 따내 또 한번 MVP를 차지했다.

특히 이양은 운동을 하면서 학업 또한 포기하지 않고 있다. 반에서도 금메달이나 따놓은

1-2등을 다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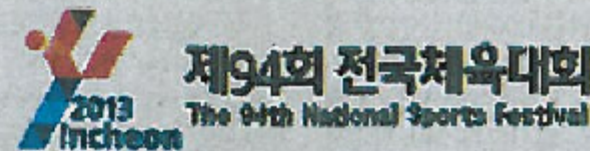
아버지 이씨는 “영승이가 신체조건이 탁월한 것도 물론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서 그런지 승부욕이 강한 편이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기를 치러왔기 때문에 대회에 나와서도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경기에 임하는 것이 이번 메달 따는 데 가장 중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양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된 뒤에 국제무대에서도 큰 성적을 거두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인문=이정민기자genius@kdaily.com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분전했으나...

후반 체력열세로 경남에 24-29 패배...전남체고 육상에서만 금 4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핸드볼팀(감독 전희환)의 전국체전 첫 승리가 아쉽게 무산됐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은 20일 오후 인천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여자일반부 1회전 경기서 경남대표인 경남개발공사에 24-29로 패했다.

선수단 부속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2013핸드볼리그에 참가했던 광주도시공사는 전패가 유력했지만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25-26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1승(20패)을 거뒀었다.

전국체전 첫 상대가 여저본 팀이였기에 내심 광주 관계자들도 복을 두드리며 열심히 응원전을 펼쳤고 기대를 걸었지만 후반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주축선수 조진선의 활약에 힘입어 맹행하게 맞섰다. 전반 15분여를 넘겨놓고 9-7로 앞지며 상대팀 선수가 연속 2분간 퇴장을 당하는 등 기회를 잡았지만 점수차 벌리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하게 아쉬웠다.

결국 14-15로 뒤진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경남의 양쪽 측면들과

빠른 역습작전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5분여 남겨둔 상황에서 21-29로 점수차가 벌어졌다.

대회 3일째인 20일 광주·전남 선수단은 본격적인 금빛 사냥에 나섰다. 광주선수단은 이날 체조, 사이클, 육상, 역도, 태권도 등서 11개의 금메달을 쏟아냈다.

우선 체조(에어로빅) 고등부2인 조예 출전한 광주체고의 김유환·정여지가 광주에 4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이이 남자고등부(이하 남고부) 사이클 경연의 유진규(광주체고), 유도 남자대학부 -60kg급의 안바울(용인대), 우수동부 남고부 태권권의 서희성(동일전자정보고), 육상 여자고등부이하 여고부 400m의 한정미(광주체고), 사이클 남자일반부(이하 남일반) 포인트레이스의 박성박(국민체육진흥공단), 육상 남일반 5000m의 김민준(광주사청), 민수영(호남진흥 100m의 김태균(광주시체육회), 우수동부 남일반 태권권전능의 장영호(광주시체육회), 역도 남고부 인상 105kg급의 박진민(광주체고), 태권도 남일반 -63kg급의 김제현(가소공사)



20일 오후 인천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여자일반부 핸드볼 경기 중 광주도시공사의 조진선이 수를 시도하고 있다.

등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육상에서만 5개의 금메달을 쏟아냈다. 특히 전남체육고등학교(교장 권오강)는 4개를 안겼다. 남고부의 윤승찬이 해머던지기에서 62m45로 전남체고에 첫 금 소식을 안겼고 이어 남고부

의 이원익이 400m, 여고부의 김은정이 높이뛰기, 여고부의 박소희가 멀리뛰기서 금빛 소식을 이어갔다. 남일반 마라톤에 참가한 박주영(한곡전학)은 2시간24분2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전남에 선사했다. 또한 송마의 권민준(금성고), 사이

클 김룡의 입사량(전남미용고), 불리 1만5,000m제외의 김찬호(광양제철고), 씨름 여자급의 고강석(여수공고), 수영 바영50m의 박선광(담양군청), 양궁 50m의 위나연(순천대) 등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인문=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

“2015U대회서도 광주 빛내고 싶어요”

광주시청 양궁 이특영 광주선수단 첫 금



광주광역시청 양궁 이특영은 19일 오후 인천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여자일반부 양궁 60m 경기서 350점으로 우승했다. 이특영은 “광주에 첫 금메달이 라니 너무나 기쁘다. 고등학교

교때는 좋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지만 이후 금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기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이후 두각을 나타내 슬럼프라는 말이 많았다”는 이특영은 “스스로 슬럼프라고 느끼지는 않았다. 계속 시합을 하면서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대표로 선발돼 다시 인천에서 활약하고 싶다. 2015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까지 연결돼 광주를 빛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문=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

“국가대표 선발전의 꿈 이뤄낼 것”

전남조리과학고 이영승, 전남선수단 첫 금



이영승은 19일 오후 인천시 동남체육관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여자고등부 불링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영승은 “첫날인데 금메달을 따내 기분이 좋다”며 “다른 팀은

들이랑 같이 열심히 해서 같이 시상대에 올라가고 싶다”고 말했다.

“소년체전에서는 다관왕을 썼지만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이 그동안 없어 고3이라 부담감이 많았다”는 이영승은 “코치님이 연습한대로 자신있게 하라고 했는데 첫날 부담감을 덜어 더욱 기뻐했다”고 웃어보였다.

이영승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그동안 아쉽게 떨어졌는데 한 번 국가대표가 되어 꿈을 이루고 싶다”고 희망했다.

인문=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

광주일보

광주·전남 초반 메달 레이스 순조



광주 금 14·은 21·동 30

전남 금 18·은 23·동 14

제94회 인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전남 선수단이 힘찬 메달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대회 사흘째인 20일 (오후 6시 현재) 광주는 양궁 60m 이특영(광주시청)의 금메달 수확을 시작으로 금 14, 은 21, 동 30개를 획득했다. 전남은 볼링 여고부 개인전 이영승(전남조리과학고 3년)을 필두로 금 18, 은 23, 동 14개로 순항중이다.

육상의 선전이 돋보였다. 전남 박주영(한국전력)이 마라톤 남자 풀코스에서 2시간 24분 24초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광주 정복순(여·

광주시청)이 여자부 3위를 차지했다. 멀리뛰기의 김덕현(광주시청)은 7.66m를 뛰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110m 허들에서 대회 5연패를 노렸던 박태경(광주시청)은 김병준(포항시청·13.71초)에 간발의 차이로 밀리며 2위(13.85초)로 끝냈다.

또한 권수영 호호잠영 김태균(광주시체육회)이 32초44로 대회 신기록(기존 32.58초)을 세우며 1위로 골인했고, 우수궁포 태극권 전능 장용호(광주시체육회)도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전남은 수영 배영 50m에서 박선관(전남 수영연맹)이 1위(25초64)에 올랐고, 볼링 2인조 박종우·최복음(광양시청)조가 합계 2060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학생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역도 남고부 이인우(완도 수산고 3년)는 69kg급 용상에서 171kg을 들어올려 2002년 사재혁(강원)이 세웠던 기록(170kg)을 갈아치우며 금 2개(용상·합계 300kg)와 은 1개(인상 129kg)를 목에 걸었다. 박철민(광주체고

3년)도 105kg급 인상에서 153kg을 들어 올려 금메달을 획득했다.

레슬링 백심현(광주체고 3년)이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76kg급, 우수궁포 투로 남고부 서희성(동일전자정보고 3년), 체조(에어로빅 2인조) 김유환·정애지(광주체고 1년) 조도 금메달을 땀다.

또한 남고부 사이클 경륜에서 윤진규(광주체고 3년)가 10여년만에 광주에 금메달을 선사했고, 여고부 경륜에서 임사랑(전남 미용고 3년)이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볼라 스피드 1만5000m 제외경기의 김찬호(광양제철고 1년)와 승마 일반부 중장애물 비월경기의 권만준(나주 금성고 2년)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 남고부·여고부 400m에서 각각 이원(전남체고 3년·48초08)과 한정미(광주체고 2년·56초50)가 우승을 가져갔다. 멀리뛰기 박소희(전남체고 2년·5.67m), 높이뛰기 김은정(전남체고 1년·1.65m), 해머던지기 윤승찬(전남체고 3년·62.45m)도 1위에 올랐다. /인천=송기동기자 song@

엄마·아빠는 지도자, 아들·딸은 선수로

전남 첫 금 이영승 “우리는 불링가족”

부모는 지역 중·고 볼링 지도자로, 남매는 불링선수로 활약하는 불링가족이 화제다. 전남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불링 이영승(전남조리과학고 3년)의 가족 이야기다.

이영승은 지난 19일 전국체육대회 볼링 여고부 개인전에서 4게임 합계 937점(평균 234.3)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첫 게임은 12번의 스트로크 가운데 7번이나 스트라이크를 터뜨려 300점 만점에 259점을 기록했다. 합계점수 799점(평균 199.8)인 2위 박지민(울산)보다 무려 138점을 앞섰다.

영승의 부모는 이성민(46) 곡성중 볼링부 코치와 윤희경(45) 전남조리과학고 불링부 코치. 동생 원석(전남조리과학고 1년)도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딸을 불링선수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부부는 대성하길 바라며 이름을 비칠 영(映), 오를

승(昇)이라 짓고, 사주에 맞춰 제왕절개 수술을 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곡성중 1학년때 소년체전에서 금2, 은1개로 MVP로 선정되며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던 영승은 앞선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은2개와 동2개를 땀다.

졸업을 앞두고 첫 금메달을 차지한 이영승은 “첫 게임이 잘 풀려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다. 앞 대회 결과가 기대치에 못미쳐 부담감이 있었는데,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꼽는 딸의 강점은 ‘멘탈(정신력)’. 또 집중력과 승부욕도 뛰어나다.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인 영승은 “체대에 진학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싶다. 또 태극마크를 달고 내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송기동기자 song@

전남매일

이영승 불링서 전남 첫 ‘금빛 낭보’

“현지 레인 적응훈련 도움”

“현지 불링장레인에 잘 적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천 전국체육대회 볼링부 전남 대표팀이 지난 19일 이영승(조리과학고 3년)이 불링 종목서 전남에 첫 ‘금빛 낭보’를 전했다.

이영승은 이날 여고부 개인전에 출전해 937점을 올려 799점의 울산 박지민과 798점의 충북 김현아를 가리며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영승의 이번 우승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당초, 이영승은 이번 체전서 개인타이를 보자 2인조나 5인조 단체전서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출전했기 때문이다. 지난 체전서도 이영승은 2인조와 5인조 경기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 개인타이틀과는 인연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체전은 달랐다. 대회 일주일을 앞두고 인천에 도착한 이영승은, 레인 적응을 위한 맞춤식 훈련이 적용되면서 우승까지 일러냈다.

앞서 치러진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대회서 마스터스와 개인종합서 2관왕을 차지한 것도 현지 레인 적응훈련이 큰 역할을 했다.

이영승은 “대회 초반 긴장하는 습관이 있지만, 이번 레인 적응훈련을 통해 단점을 많이 극복한 것 같다”며 “긴장하지 않고 평소처럼 경기에 임한 것이 실전서 고득점을 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활짝 웃었다.

이영승의 금빛 행진은 실력과 운도 따랐지만, 가족 영향이 무엇보다 컸다.

부모 모두 현재 불링의 대가인 곡성서 불링인재



육성을 위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아버지는 불링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남 선수단 고등부 감독이고, 어머니는 곡성중앙초와 곡성중학교, 전남조리과학고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남동생 또한 고등부 선수로 활약, 은 가족이 불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영승은 “평소 훈련이나 시합때 부모님께서 다양한 조언을 하곤 한다”며 “사소한 버릇이나 정크스까지 정확히 짚어내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박주영 남자 마라톤 금

전남 대표 박주영(33·한국전력)이 20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 남자일반부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호하고 있다. 임정욱기자



인천 전국체전 3일째인 21일 마라톤 종목에 전남 대표로 나선 박주영(가운데)이 2시간24분24초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 육상선수 최초로 마라톤 3회 우승(89·91·94체전)이라는 전 기록까지 세웠다.

전국체전 3일째 광주·전남 메달 순항

광주 강세종목 양궁·레슬링·체조 등서 '금빛 낭보'

역도 이인우 첫 2관왕·박주영 마라톤 3연패 전남



제94회 인천 전국체전에 참가하고 있는 광주·전남선수단은 대회 초반 예상했던 메달을 획득하면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대회 3일째인 20일(16시 기준) 광주는 금6·은17·동23개를 따내 총득점 858점으로 15위, 전남은 금14·은17·동11개를 따내 917점을 올려 나란히 14위를 마크하고 있다. 광주의 첫 금은 여자 양궁에서 터졌다.

지난 19일 일반부 60m에 출전한 이득영(24·광주시청)이 계양아시아드 양궁장에서 350점을 쏘아 349점을 올린 고은별(여주시청·경기)과 348점의 한경희(전북도청)를 아슬아슬

하게 따돌리고 첫 승전보를 올렸다. 이득영은 경기종반까지 1점차로 고은별에게 끌려갔지만 마지막 6탄에서 59점을 쏘아 고은별을 2점차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여대부 안서진(광주여대4)도 60m서 343점으로 금을 수확했다.

또, 레슬링·체조·사이클에서 '금빛질주'가 이어졌다.

백신현(광주체고3)이 그레코로만형 76kg급서 경기대표 이종연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3일째에는 체조 고등부 여아로봇 2인조서 김유현·정예지(광주체고1)조가 우승을 차지했고, 사이클 남고부서는 유진규(광주체고3)가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보리밭 남자 일반부 75kg권급의 김형찬(광주시체육회)과 ▲90kg급

김명훈(광주시청) ▲대원도 여대부 -48kg급의 김미소(조선대3) ▲수영 다이빙 남고부 류민제(광주체고2) 등은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특히, 역도 여고부 최다혁은 75kg급서 인상 101kg, 용상 135kg, 합계 236kg을 들어올려 은메달만 3개를 따내, 광주팀 메달획득에 큰 보탬이 됐다.

110m허들서 5연패를 기대했던 박다경은 13초 85에 그쳐 은메달에 머물렀다.

전남의 첫 금은 불령서 나왔다. 체전 2일째 이영승(조리과학고 3년)이 불령 종목서 전남에 첫 '금빛 낭보'를 전했다.

이영승은 이날 여고부 개인전에 출전한 937점을 올려 799점의 울산 박지민과 798점의 충북 김현아를 가볍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 역도에선 광주·전남 첫 2관왕이 배출됐다.

이인우(완도수산고3)는 대회 2일째 주안초등학교에서 열린 남고부용상 69kg급서 171kg을 들어올리며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고 인상서 121kg을 기록해 합계 300kg로 금메달을 추가, 첫 2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인상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따라서, 이인우는 지난체전 은메달 3개에 그쳤던 아쉬움을 이번체전서 한번에 털어내 버렸다.

마라톤서는 기대주 박주영(한국전력)이 2시간24분24초를 기록하며 승전보를 전했다. 박주영의 이전 우승은 육상선수 최초로 마라톤 3회 우승(89·91·94체전)이라는 전 기록까지 세우게 됐다.

사이클에선 임사영(전남마고3년)이 2연패를 달성했고, 수영에선 박선관(담양군청)이 50m 배영서 우승을 차지했다.

/고광민 기자